

# 정재호 (1971년 서울생)

정재호(1971년 한국 출생) 작가는 한국의 근대화 시기에 구축된 도시의 발전과 쇠락의 과정을 회화적으로 재현한다. 작가는 2001년 첫 개인전부터 서울의 야경을 담은 풍경화를 선보였다. 작가는 1960-70년대 세워진 아파트와 주택, 빌딩 등을 독립적인 소재로 다루어, 이들의 정면 외벽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한 대형 회화를 제작했으며, 이후 작가의 시야는 더욱 넓어져 도시의 쇠락한 지역을 장시간 관찰하고 기록한 풍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서양 매체를 혼용하여 동양화의 깊고 바랜 듯한 느낌을 아크릴과 유화물감을 사용한 투명하고 무겁지 않은 색조와 질감에 더하여 정재호 작가만의 화풍을 구축하였다.

2010년 전후, 작가는 풍경화와 더불어 1960-70년대의 정부 간행물과 대중문화 영상물, 공상과학만화 등의 시각 자료를 회화로 옮긴 '아카이브 회화'라 불리는 작품군을 시작하였다. 작가는 아카이브 회화와 건축물 회화를 통해, 집단적인 개발과 발전, 노력과 화합이 근대적 이상의 실현으로서 국가 주도로 권장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구성원에게 미래를 위한 덕목으로 내면화된 상황을 포착한다.

정재호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2018년 SBS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공동 주최한 권위 있는 대한민국 작가상 후보에 올랐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훈갤러리, 갤러리현대, 갤러리 소소, 금호미술관, 초이앤초이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 개인전

2023	《성운》, 아트앤초이스, 서울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초이앤초이 갤러리, 서울	작품 소장
2020	《창과 더미》, 상업화랑, 서울	
2018	《로켓과 몬스터 - 올해의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7	《열섬》, 인디프레스,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2014	《먼지의 날들》, 갤러리현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2011	《흑성》, 갤러리소소, 파주	제주도립미술관
2009	《아버지의 날》, 갤러리현대, 서울	서울대학교미술관
2007	《황홀의 건축》, 관훈갤러리, 서울	의재미술관
2005	《오래된 아파트》, 금호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2004	《청운시민아파트》, 갤러리피쉬, 서울	OCI미술관
2003	《인천여행》, 인천신세계갤러리, 갤러리피쉬, 서울, 인천	
2001	《보다》, 공평아트센터, 서울	

## 1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2008년 «B-Side» 전시를 통해 공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으로 형성된 버섯구름을 그린 것이다.

정재호 작가는 한지에 먹으로 배경을 검게 칠하고 중앙에 대상만을 하얗게 남김으로써 전쟁의 맥락을 삭제했다. 버섯구름은 전쟁과 원자폭탄이라는 현실에서 빚겨 나와 마치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물질처럼 보인다.

2008년 당시 미디어를 통해 송출되던 세계 곳곳의 전쟁 기계들은 이미지 그 자체로서 작가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작가는 기계에 픽션을 더해 돌연변이와 같은 괴물을 탄생시킴으로써 일종의 기계비평을 시도했다.

## 2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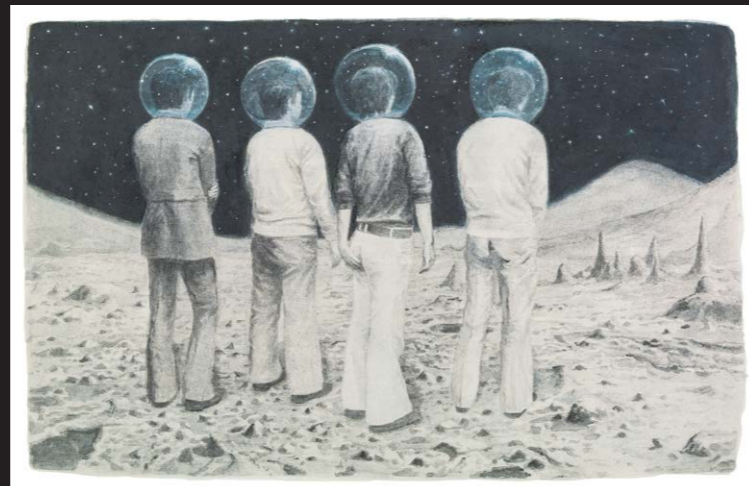
〈청춘〉은 작가가 2010년을 전후로 시작한 아카이브 회화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개인전 «먼지의 날들»에 출품되었다. 작가의 아카이브 회화는 주로 1960~70년대 정부 간행물 혹은 영상 등의 공적 자료에서 그가 직접 수집한 시각 자료를 회화로 옮긴 연작 성격을 띠고 있다.

작가가 아카이브 회화에서 구현하는 이미지와 사물은 전술한 시기의 1970년대 군사 독재 시대와 같은 한국 현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가 그려온 건물들의 건축이 시작된 시기와의도 맞물린다.

특히 〈청춘〉은 1970년대 후반 장발족 단속에 걸려 바리깡질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담은 한 장의 흑백사진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퇴폐족 단속이라는 명분하에 미니 스커트, 장발족 단속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기의 모습을 하나의 파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작품이다.



〈나가사키〉, 2008, 한지에 먹, 92x123cm



〈청춘〉, 2012, 한지에 아크릴, 78x121cm



〈청운동 기념비〉, 2004, 한지에 먹, 목탄, 아크릴, 182x454cm

## 3 청운동 기념비

〈청운동 기념비〉는 2004년 개인전 «청운시민아파트»에서 정재호 작가가 처음으로 선보인 아파트 작업이다. 같은 해 처음으로 종로구에 소재한 청운아파트를 방문한 작가는 오래된 건물과 함께 재개발로 인해 건물에서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들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오랜 시간을 건넨 흔적과 그 속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자취를 포함한 건물을 마치 기록하듯이 꼼꼼히 묘사하였다. 가로로 난 반복적인 패턴과 단순한 색 구성으로 처리한 건물의 표면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작가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아파트의 모습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대를 기록하는 행위로서 아파트를 그려내며 제목의 기념비 역시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작가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

작가에게 아파트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주거를 위한 건축물인 아파트를 회화로 재현하면서,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번영과 발전을 거듭한 도시 풍경의 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 이후 작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건설된 아파트들을 찾아 화폭에 옮긴다. 낙산아파트, 한남맨션, 삼일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 화현시범아파트, 중산시범아파트, 대광맨션아파트, 금화시민아파트 등과 같은 다수의 아파트가 작가에 의해 회화로 재현되었다.

〈난장이의 공〉은 2018년에 열린 «올해의 작가상 2018»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작가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을지로 일대를 배경으로 한 풍경화 작업을 활발히 전개한다.

〈난장이의 공〉은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보는 을지로의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화면 하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구 건물들은 을지로 지역의 난개발을 대변한다. 이러한 을지로 상공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는 화면 상단에 그려진 로켓의 묘사는 얼핏 엉뚱하면서도 비현실적이다. 로켓은 작가가 유년기에 즐겨 읽던 만화 『요철 발명왕』(1975~1977)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것으로, 로켓은 당시 과학기술을 향한 집단적 꿈과 환상에 대한 시대상을 담고 있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이 비극으로 끝난 점은, 정재호가 그린 로켓을 집단의 좌절된 유토피아적 미래와 연결지어 바라보게 한다.

결국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로켓 모티프는 도시 개발에 따라 기억과 역사가 소멸되어 가는 을지로의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장이의 공〉, 2018, 한지에 아크릴, 400x444cm